

그 많던 고려시대 책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독서의 풍속사 — 1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지상에 책이 발명된 이후 사람들은 책을 만들고 읽는 일에 한시도 게으르지 않았다. 독서의 역사는 앎을 향한 '관능적 탐욕'의 긴 각주다. 이 땅에도 책을 향한 무한한 열정의 기록이 가득하다. 선인들은 인격을 완성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 책에 의지했다. <독서의 풍속사>는 앞으로 고려시대부터 개화기까지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은 독서의 흔적을 답사해나간다. — 편집자

연구를 하다 보면 꼭 보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만, 혹은 책의 이름만 전해지고 정작 책 자체가 전해지지 않아 볼 수 없음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던가? 이름만 남은 책들은 무한한 아쉬움과 집착을 낳는 법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장미의 이름》에서 사라져버린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을 되살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기둥으로 삼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라의 향가집 《삼대목》은 그 이름마저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으리라.

옛책은 과거를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한데 옛책이 시대적으로 균등하게 남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규장각·장서각을 위시한 도서관의 옛책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것이며, 그 중에서도 임병양란 이후의 것들이 압도적 다수다. 조선 전기의 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고려시대의 책은 그야말로 희귀본이다. 남아 있는 고려의 서적들은 대개 국보급이다. 우리가 조선 전기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말이지 자료의 결핍을 통감하게 된다. 도대체 그 많았던 책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고려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중국이 희귀본 요청할 만큼 방대한 장서 갖춰

고려 성종 9년(990) 왕은 평양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고, 유생들에게 중요한 서적을 필사하게 할 것을 명한다. 후삼국 시기의 전쟁으로 망실됐던 서적들을 상당량 복구시킨 뒤 자신감을 얻자 서적 집적(集積) 사업의 확대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국가의 장서는 급격히 팽창했다. 선종 8년(1091) 6월, 송나라에 파견됐던 이자의 등이 귀국할 때 일이다. 송나라 황제는 귀국하는 고려 사신에게 중국에

서 구할 수 없는 희귀본을 베껴 보낼 것을 부탁한다. 《고려사》에 실려 있는 목록을 보면 127종에 약 5천권이다. 황제가 요구한 방대한 책이 모두 고려에 있었던 것은 아닐 테지만, 상당량의 책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 책의 이름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고려는 중국이 희귀본을 요청할 정도로 방대한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요청이 있었던 해로부터 7년 뒤인 1096년(숙종 원년) 7월에 숙종은 문덕전(文德殿)에 가서 소장 서적을 열람한다. 그 가운데 완질인 것은 문덕전과 장령전(長齡殿)의 어서방(御書房)·비서각(秘書閣)에 나눠 소장하고, 남은 것은 신하들에게 내려줬다. 이 시기까지 국가의 주 도서관은 문덕전이었던 모양이고, 여기서 넘쳐나는 책을 장령전의 어서방·비서각으로 옮겨줬던 것이다. 또 숙종은 즉위 5년에 궁중의 서적에 모두 소장인을 찍었다. '고려국십사엽신사세어장서(高麗國十葉辛巳歲御藏書) 대송건중정국원년(大宋建中靖國元年) 대료건통원년(大遼乾統元年)'과 '고려국어장서(高麗國御藏書)'란 인문(印紋)도 긴 두 종류의 도장이었다. 책은 계속 불어났다. 인종 원년(1123)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서궁(徐兢)의 《고려도경》에 따르면, 청연각(淸燕閣)에도 여러 역사서와 제자백가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임천각(臨川閣)이란 건물은 오로지 서적 수만권을 보관한 곳이었다고 한다.

외교와 민간무역 통해 중국 서적 수입해

이처럼 거창한 국가 장서는 어떻게 축적됐던 것인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필사본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간본으로 말하자면(불경은 일단 제외) 정종 8년(1024) 2월 경주에서 《전한서》《후한서》《당서》와 같은 중국 역사책을 목판본으로 찍은 것이 기록상 최초의 것이다. 이후 숙종 6년(1101) 3월, 비서성의 목판이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넘쳐나서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해 목판을 이관했으니, 간본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만하다.

그밖에 대부분의 책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흥미로운 예가 있다. <적벽부>로 유명한 소동파는 1093년 <논고려매서이해차자(論高麗買書利害劄子)>, 곧 '고려가 책을 사는 문제의 이해 관계를 따진 상주문'을 황제에게 올리고 있는데, 요지는 고려 사신에게 책을 팔지 말라는 것이다. 이유야 여럿이지만, 핵심은 고려로 수출된 책이 당시 송의 두통거리였던 요(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요는 이 책들을 통해 중국의 지리를 알아 침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여러 모로 검토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 고려가 중국 서적을 맹렬히 수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외교 루트만이 아니라, 민간 무역을 통해서도 책은 수입됐다. 현종 18년(1027) 8월에 송의 강남 사람 이문통 등이 서적 596권을 바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품이었을 것이다. 또 선종 4년 3월 송의 상인 서진 등 20여명이 바친 신주화엄경판(新註華嚴經板)은 고려에서 주문을 받아서 조판한 것이었다. 또 명종 22년(1192)에는 송나라 상

인들이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바치고 백금 60근을 받아가고 있다. 송과 고려의 활발한 무역을 생각하면 상당한 양의 서적이 황해를 건너왔을 것이다.

무신란과 몽고란 등으로 국가 장서 사라져

이처럼 거창했던 고려의 국가 장서는 어떻게 소멸했는가? 최초의 재난은 인종 4년(1126) 이자겸의 난이다. 난에는 화재가 따른다. 《고려사》는 이자겸의 난 때 화재로 “산호(山呼)·상춘(賞春)·상화(賞花) 세 정자와 내제석원(內帝釋院)의 낭무(廊廡) 수십간만이 겨우 남았다”고 전하고 있다. 궁중에 소장돼 있었던 국가의 장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어지는 무신란과 몽고란도 서적을 없애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170년 무신들은 “문관(文冠)을 쓴 자는 서리까지도 종자를 남



고려의 국가 장서는 수차례의 전란과 화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고려시대 책 관련 기록은 《고려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진은 《북역 고려사》.

기지 말라”면서 문신을 철저히 제거했다. 군사정권의 무지막지함은 시대를 초월한다. 책을 읽을 사람을 없애버렸으니, 책이 무슨 소용인가? 무신 집권기에 몽고의 침입이 시작됐다. 몽고는 1231년 살레탑의 1차 침입부터 1257년 차라대의 7차 침입까지 고려를 유린했다. 1232년 6월 16일 조정은 천도를 결정했고, 7월 7일에 왕(고종)은 강화도에 도착했다. 20일 남짓한 시간에 궁중의 장서를 모두 옮길 수 있었던 것일까? 일부 서적은 옮겨졌겠지만, 대부분은 방치됐을 것이다. 더욱이 강화 천도로 인해 몽고의 2차 침입이 있었으니, 이때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돼 있던 초조판 고려대장경이 소실됐다. 고려전기의 서적은 이렇게 내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재로 변했던 것이다.

고려가 몽고의 부마국이 된 이후 서적은 다시 집적됐다. 중국 서적 수입을 예로 들어 보자. 충선왕(1275~1325)은 세자 시절 원나라에 머무르다가 고려로 귀환할 때 송의 비각(秘閣) 서적 4천권을 받아왔다고 한다. 또 충선왕이라면, 만권당이란 도서관을 세운 사람이 아닌가? 그는 연경에서 사망하는데, 그의 유해는 고려 땅에 묻혔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만권당이 충선왕의 사설 도서관이었던 만큼 고려

“임진왜란으로 우리는 《고려사》와 몇 종의 문집을 제외하고는 고려의 역사를 풍부히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오로지 일본에 남아 있는 몇 종의 서적에서만 고려 전기 서적의 편린을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일 뿐이다.

만권당의 서적은 그 전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14세기에 와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분량의 서적이 수입됐던 것은 확실하다. 충렬왕 30년(1304)에 성리학의 최초 수용자인 안 향은 쇠락한 성균관의 교육을 부활하기 위해 관리들로부터 은을 거둬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 중국 강남에서 육경(六經)과 역사서를 비롯한 상당량의 서적을 사들였다. 뿐만 아니라 10년 뒤인 1314년 6월에는 1만8백권, 7월에는 4천3백71책, 합계 1만7천권의 중국서적이 고려로 전해졌다. 6월의 서적은 원래 성균관에서 수입을 추진한 것이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구입하지 못하고, 홍약이란 사람이 대신 돈을 내 구입했던 것이고, 7월의 서적은 홍약이 황제에게 주청해 송(宋)의 국가 도서관에 소장됐던 서적을 하사받은 것이었다.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 서적이 전해져

이 책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 책들도 온전하게 후대로 이관되지 않았다.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말의 인물인 설장수는 《농상집요》란 책의 발문에서 개경의 서적들이 ‘신축년 오랑캐의 분탕질’에 모두 없어졌다고 증언한다. 신축년 오랑캐의 분탕질이란 곧 1361년 공민왕 10년 2차 홍건적의 침입이다. 홍건적은 개경을 점령해 약 2개월 동안 약탈했다. 서적이 대량 망실됐던 것은 불문가지다.

이것으로 고려의 모든 책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조선 세조 때 양성지의 말에 따르면, 옛날 고려 숙종 5년의 장서인이 찍힌 책들이 그 당시 홍문관 장서 가운데 상당량 남아 있었다고 한다. 고려전기의 서적이 조선 전기까지는 제법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서울을 떠나자 경복궁이 불탔고, 이때 궁중에 있던 모든 책들이 소실됐다. 이 최후의 일격으로 1592년까지 남아 있었던 고려의 서적은 영원히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임진왜란으로 우리는 《고려사》와 몇 종의 문집을 제외하고는 고려의 역사를 풍부히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오로지 일본에 남아 있는 몇 종의 서적에서만 고려 전기 서적의 편린을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훗날 경복궁은 대원군에 의해 복원됐지만, 재가 됐던 그 책들의 복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을 전쟁이여, 화재여! ■